

전북농협, 가정의 달 맞아 모범직원 2명 선정

전북농협 직원 2명이 가정의 달을 맞아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모범직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가정의 달 모범직원상에 전북농협 유윤화 과장과 익산농협 장문호 팀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윤화 과장 장문호 팀장

가정의 달 모범직원상은 전국 농·축협과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효행과 가족 사랑을 실천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0명이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 과장은 세 자녀를 둔 가정으로 배우자의 업무 환경을 배려해 가사와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가족 중심의 삶을 실천해왔다. 또한 연로한 어머니와 장모를 정성껏 봉양하며 효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18년간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조직 내에서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장 팀장은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겪는 배우자를 5년 넘게 돌보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익산농협 여신사업 성장에 기여해왔다. 여기에 파킨슨병을 앓는 노모까지 보살피며 가정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후배 직원 양성에 힘쓰며 조직 내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운봉농협 청년회, 남원시 농특산물 축제 참여

남원 운봉농협 청년회(회장 이정구)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열린 2026년 남원시 농특산물 축제에서 운봉 농산물 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대대적인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 행사는 운봉농협 청년조합원들이 직접 짬 흘려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마련, 부스에서는 우수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운봉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축제를 통해 발생한 판매 수익금 전액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운봉농협과 청년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성사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공 전북본부, 미혼모 가족 봄나들이 지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어버이날을 맞아 미혼모자 가족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6일 미혼모자 복지시설 기쁨의 하우스 가족들을 초청해 익산 보석박물관 일원에서 봄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혼모자 5가족이 참여했으며, 도로공사 직원 8명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엄마들은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본부는 이번 활동에서 미혼모와 영유아를 위한 육아용품 구입비 100만 원도 함께 전달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갔다. /오상근 기자

장수소방서, 소방경 근속 승진자 임명장 수여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6일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4명에 대한 소방경 근속승진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근속승진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은 유신욱·문형주·소장섭·정동철 소방경이다. 이들은 수십 년간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부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임무를 수행해 온 베테랑 소방관들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AI·로봇 기반 건설산업 혁신 방향 공유

건설협 전북도회, '사랑 나눔 회원의 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회원 화합과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행사를 열고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6일 전주 상그랜드CC에서 회원 대표이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사랑 나눔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 간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손태홍 실장이 '건설산업 재탄생(Redirt) 2.0'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건설산업의 변화 방향과 미래 전략을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올해 행사는 회원들이 납부한 참가비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공헌에 힘을 보탤



다고 설명했다. 소재철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뜻깊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규 불량 창출과 적정 공사비 확보에 힘쓰겠다"며 "도내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회원사 경쟁력 강화와 일감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위러브유, 전주 홀몸어르신가정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회장 장길자, 이하 위러브유)의 '어머니 마음'이 깃든 복지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 복지취약계층의 보급자리를 개선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이들을 응원했다. 지난 6일, 전북 덕진구의 홀몸어르신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봉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퇴원을 앞둔 어르신이 귀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추진됐다. 위러브유 관계자는 "어르신이 쾌적한 보급자리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뜻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이웃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활동에는 회원 33명이 참여해 오전부터 본격적인 장소에 나섰다. 봉사자들은 생활 폐기물과 오염된 가구를 정리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 특히 주방과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을 돕기 위해 방문한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어르신의 가족들은 연신 고마움을 표현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김재훈 기자

민주평통 전북, 올 상반기 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김영복)는 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자문위원과 전북도민, 청년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상반기 전북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중 경쟁 심화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화공존과 통일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안문석 교수는 북·러 밀착 등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을 진단하며 "독일 사례처럼 형식적 접근보다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는 실용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복 전북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의 장



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지역회의가 미래세대에게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고, 다시 올 교류의 시대를 차분히 준비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평화 담론 형성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남원 산내면 지사협, 생활용품 세트 나눔 행사

남원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중 및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생활용품 세트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 위원과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관내 취약계층인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총 10가정을 직접 방문, 5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어르신 '카네이션 드림' 행사 진행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은주)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권)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7일, 1일 1가구 소품 행정을 통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카네이션 드림'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평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풍년제과 하정동커퍼의 제과 꾸러미 후원으로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청 이재운 팀장,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표창

진안군은 7일 이재운 기획홍보실 홍보팀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 규제개혁 유공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이 팀장이 2025년 전북도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자치제도에과에 과건 근무하는 동안 중앙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 성과를 이룬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이 팀장은 제1회 전북도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 공직자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두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완주 숲속 힐링캠프

두드림 사회적협동조합(대표 최성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고산문화공원과 참포미를 일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및 문화활동 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한국신협복지지원원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평소 다양한 야외활동과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이 자연 속 힐링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1차 캠프에는 두드림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이용자 35명을 비롯해 인직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첫째 날 전주 힐링랜드에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고산문화공원 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는 숲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참포미에서 참포 군락지를 둘러보고 천연 재료를 활용한 '참포 삼투 만들기'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두드림 사회적협동조합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두드림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오만호 기자

안보공 전북본부, 축사 지붕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상열)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안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며 축산농가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축사 개·보수 작업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축사 사업주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5년간 지붕공사 사망사고의 61%가 노후 채광판 파손에 따른 추락사고로 발생한 점에 주목해 마련됐다. 공단은 남원축협과 협력해 한우 경매장에 맞춰 가축시장을 찾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공단 직원과 남원축협 조합원들은 안전문화 확산 메시지가 담긴 어깨띠를 착용하고 현수막 게시, 차량용 자석 시트 부착, 자석형 홍보물 및 기술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지붕 작업 시 필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일상 속에서 쉽게 안전수칙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물을 제공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오만호 기자